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52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6. 7(금) 11:00 ~ 12:55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김혁수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승정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성 원 보 고

ㅇ박종관 위원장

- 먼저 날씨가 궂은데도 오늘 임시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6월 위원회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회의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사무처장 임용건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영주 본부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위원 10인 중에서 10인이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 회 선 언

ㅇ박종관 위원장

- 방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 결 사 항

ㅇ박종관 위원장

- 회의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먼저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ㅇ최창주 위원

- 공개해야죠.

ㅇ강홍구 위원

- 네.

ㅇ박종관 위원장

- 공개에 이의가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처장 임용이 너무 많이 늦어지고 이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 최종 후보자에 대한 최종 동의를

얻어 사무처장을 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들이 먼저 올라와있으니 이 의견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눌까 합니다. 최창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주시죠.

○최창주 위원

- 3가지인데 첫째, 심사위원의 구성 방법입니다. 위원회 위원장만큼 중요한 보직이라 할 수 있는 사무처의 수장을 뽑는 중차대한 문제에서 위원회 위원들을 논의, 결정에서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제도는 독임제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공정이 강조되거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선임문제는 그동안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보고했으나 위원이 배제된 채 외부 위원만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위원회에 보고된 적도, 위원장이 위원 중 단 한명과도 협의를 한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사위원회는, 당연히 기존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내부위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심사위원회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은 항상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위원들을 배제한 채 본인의 생각으로만 구성을 했고 그것조차 기존의 선임방법을 무시한 채 독단적 방법으로 구성했습니다.
둘째, 심사위원 선임문제입니다. 모든 심사위원회 구성할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만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심사 위원들조차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인사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합의제 방식에 위배되었고 심사위원 조차 지나치게 한쪽 경향을 대변하는 인물들로만 구성이 되어,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중립성의 결여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사무처장은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지난 해 6월부터 현재까지 사상초유로 1년 동안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이 임명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도, 정식 사무처장이 선임되지 않고 여전히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니 이번 심사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5명에,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계시겠지만, 현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위원회 근무 경력이 32년에, 지난 2년간 위원장 유고상황에서 위원장 직무대행 및 사무처 직원들과 위원회 최대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1차 서류전형에 포함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그 사람과 무려 8개월 동안 함께 숱한 위기상황을 극복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이나 능력, 역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류전형에서조차 탈락이 될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위원회 사무처장은 위원장, 위원들, 직원들과 함께 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리 중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는 사람을 뽑으면서 문제투성이인 경우는 처음 봅니다. 따라서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문제점을 바로 잡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선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공모자 명단과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심사위원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최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간담회 때에도 배포하였고 오늘 회의 자리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기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기봉 위원

- 위원장님이 벌어진 현상에 대한 인식 또는 해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은 규정상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라는 규정보다는 사무처장의 연봉과 채용 승인을 위원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점은 위원회 보고 사항이 아니라 심의 사항이라는 점, 즉 위원회에서 동의나 부결시킬 수 있다는 점, 사무처는 이에 대하여 추천된 사무처장에 대하여 동의여부만 위원들이 할 수 있다고 소견서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적격여부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의 절차를 물어, 위원들은 위원장과 사무처를 견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라고 생각 합니다.
  임용 절차에 대한 문제, 임용 진행경과 및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예술위에 주어진 혁신과제는, 주어진 절차와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를 받고 있다는 점, 위원회 임기는 위원장 선출과정에서부터 예술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주어진 조건과 환경 아래에서 어떻게 반영하거나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문체부가 주도해오던 위원장 선출을 위원회가 주도하면서 추천위원회 구성, 추천위원의 추천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일련의 시도, 현장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 후보자에게 공통의 질문들을 작성했고, PPT를 발표하게 했고, 나주에서 면담을 진행했고, 현장의견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향후에 공개하는 등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와 방향이 사무처장 선임 과정에서도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용과 관련된 모든 일정이 집행된 뒤, 위원회에 정식 안건이 아닌 통보 또는 정보공유라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들, 임용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위원들의 의견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기를 기대하는 현장의 의견과 달리 위원장과 사무처 논의 속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안에서 충분한 토론보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지금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사무처 소견은 보내드린 자료를 다 읽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무처 해석에 대하여 현장이 이해해줄 것인가와 훗날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동의 범위는 사무처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후 위원회에서 추진절차를 논의하여 추진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위원회에 회부한 최종 사무처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위원장 의견을 들어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었던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해석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절차에 대한 위원회 동의여부에 대한 해석이, 위원회 내부 위원들간의 이견도 존재하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무처장 동의안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절차와 과정상에 다른 견해로 위원장의 동의 요구에 토론 등을 통해 적정한 해결 방안을 찾기를 희망해 왔지만,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 결국 다수결 결론을 내려야하겠다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동의와 부결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후보자에 대한 동의와 부결로 외부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더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부결로 내려질 때, 후보자에 대한 부동의로 읽혀질 수 있고, 다수결 보다는 끝까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의결이 가져올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들은 숙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결 시 위원장의 리더십에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과제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그 지적한 지점에서부터 개선한 이후에 임용과정을 다시 진행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가에 대하여 위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의 하지 말고 승복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합의제 체계라는 점에서 우리가 승복해야할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 바로 합의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 징계위원회 구성 때부터 사무처 혁신과 관련하여, 위원회 안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사무처혁신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6기 위원들은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출범하였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위원들이 사죄, 위원장의 중도 사임, 전임 사무처장의 사퇴 등의 일을 겪었습니다. 서로 갈등하면서도 끝내는 이해하고 공동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 역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슬기로운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회의 사무처 혁신과 혁신과제를 수행해야할 신임 사무처장이 본인의 임용 동의가, 위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투표까지 가서 결론이 나왔다면, 사무처장이 과연 힘을 받아서 이후의 일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동의든 부동의든 향후에 이 문제들은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화자를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지금 주어진 혁신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끝에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의 추천아래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동의해주기를 개인적으로 제안합니다. 대신에 위원장은, 내부위원과 외부민간위원과 신임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사무처 혁신 TF를 구성하고 3개월 이내 활동해서, 9월 위원회 월례 정기 회의에 사무처 개혁안을 보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의 제안 잘 들었습니다.

○강홍구 위원

- 사무처에서나 법률가들의 해석이나 법적문제가 없다는 해석인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전문가가 이야기한 이상 이의제기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김기봉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6기 위원들이 어떤 경우든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투명성, 공정성, 기타 등등의 문제를, 위원장님이나 감사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간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없었던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 이것을 취소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결론이 어떻게든 나려면 그 갈등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위원장님이시고, 이미 사과를 하셨겠지만 명백한 사과, 그리고 김기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과정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봉 위원의 의견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표결도 합의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승정 위원

- 저는 이번 사무처장 임용의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의 회의록도 속기록도 다 공개하자고 했는데, 각자의 위원들이 자기 소신을 충분하게 말하고, 이 부분이 나중에 역사에 위원들이 평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절차대로 진행하시죠. 그리고 김기봉 위원님께 질문하는데, 오늘 위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것에 대해 찬성하자는 뜻입니까?

○김기봉 위원

- 네. 문제점은 지적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안은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승정 위원

- 저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을 뽑을 때 이렇게 뽑을 것인지, 모든 직원들을 이렇게 뽑아왔는지, 이런 방식이라면 부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앞으로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무처장이 이런데 직원들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에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쇼.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이희경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창주 위원님께서 3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독단

적이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이 모든 절차에 본인 의지대로 했다는 뜻인지요? 지금 사무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조직이 사무처에서 일을 할 때 임의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제가 심의위원을 추천 할 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사무처 풀에서 올라오면 그걸로 정리를 하는데, 이 독단적이라고 하는 뜻은, 위원장님이 그런 절차를 다 무시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사위원들이 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구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심사위원이 그런 방식으로 선정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공평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류를 보니 서류 결과표에 양ㅇㅇ이라고 무기로 되어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안타깝게 5명을 뽑게 되니 6위가 된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위원회라는 조직이 아무리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었어도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보면 그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ㅇ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 말씀 주십시오.

ㅇ나종영 위원

-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규정에 사무처장 임용 절차에 세부 절차가 없었습니다. 결과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 사전 논의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도 사과를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위원장께서 사과하고, 사무처장 임용절차에 대해서 김기봉 위원이 이야기한 TF와는 별개로 규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다른 작은 안건들도 위원회 동의를 받는데 사무처장은 비상임 이사들이 외부위원 구성에 대해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회의의 가결이나 부결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면 부결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후에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사전적인 협의가 없었느냐, 처음부터 그게 문제였습니다. 인사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조심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안건에는 누구를 임용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위원회에 두 사람을 올려서 결정을 해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장님 입장에서 1명을 정해서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좀 더 숙의하고 합의든 표결이든 진행해서, 12시30분까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ㅇ김혁수 위원

- 민감하긴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원자 총 17명 중 3명이 후보자로서 경력이 올라왔는데, 전부 문화예술 쪽이 아닌 사회학 분야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데, 나종영 위원님 말씀에 따라 결론을 내야겠지만 향후에 직원 채용할 때 부정적 사례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위원 지정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회의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물론 합의가 됐으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표결한다고 하더라도, 표결도 전체 의결을 받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봉 위원님께서 사무처혁신 TF를 제안하셨는데, 다시 내부 위원들까지 참여해서 TF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이제부터 사무처 혁신은 위원장님의 역할이고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기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기숙 위원

- 심의위원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최창주 위원님의 말씀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 같고, 표결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윤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윤주 위원

- 저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고, 경중한 판단들을 내려야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운영될 때에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가야할 것인지, 자의적 해석이나 주관적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규정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면 족쇄가 되어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간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대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유연성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입니다. 어떨 때에는 유연성이지만 어떤 때에는 지금 사태와 같이 너무 자의적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독단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특정인이 배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우리 6기 위원회가 이 시점에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규정을 개선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기봉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무처 혁신 TF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염두에 두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근거로 놓고 생각해 볼 때,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사무처장 채용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위원장이 위원들과 몇 회의 논의를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같은 심사위원도 선정해야 하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개정하여 규정으로 남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봉 위원님의 만장일치 의견에 대해서 합의제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동의 관련해서 표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투표를 개별적으로 의제를 밝혀서 진행하는 것이 민주

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혁수 위원

- 저는 위원장님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윤주 위원님은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강윤주 위원

-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사과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김혁수 위원

- 법적으로 또 규정상으로 문제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회의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먼저 안건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토론이 돼서 절차를 거쳐 오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승정 위원

- 이희경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인재성장 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15명의 예비 심사위원이 있었죠? 예비 심사위원을 어떻게 뽑았나요?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사무처장 임용 경과 5페이지를 보시면, 평가하기 위한 평가요건들이 1~3번까지 있는데, 그 평가표가 서류심사평가 표입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평가표를 놓고 세부기준과 주요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처장 심사위원 풀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문화예술정책 전문성과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 역량,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혁신성, 이 기준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현장과 소통해서 풀을 구성을 해 주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우리 기관이 당면한 미션 중 하나가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의 오명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예술 현장과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30명 가까운 광범위한 인력풀을 검토하여 심사위원 풀을 사무처에 주었고, 최종 15명은 인재성장부에서 결재를 올려 제가 결재하였습니다.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위원장님이 주신 풀에다가 기관 행정 및 예술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사무처에서 별도의 인력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승정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인사 풀에서 위원장님이 15명을 뽑았다는 것이잖아요? 그 15명 명단을 누가 추천해서 누가 뽑았다는 것인가요? 사무처에서 몇 명, 위원장이 몇 명 추천했어요?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결론적으로 사무처가 마련한 풀에서 6명이 선택되었고, 위원장님이 주신 풀에서 9명이 선택되었습니다.

○강홍구 위원

-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15명을 사무처에서 추천을 했다는거죠?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네, 사무처에서 추천해서 위원장님이 결재하셨습니다.

○강홍구 위원

-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5명을 선출하는 건 누가 이 기준을 갖고 뽑았냐는 겁니다.

○이승정 위원

- 거기서 위원장님이 5명 선택하신 것입니까?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위원장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 풀에 있는 분들께 연락을 다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강홍구 위원

- 인재성장부에서 다 전화를 해서 15명 가운데 되는 사람 5명 뽑았다는 것이죠?

○이승정 위원

- 이 앞전 회의 때 분명히 인재성장부장께서 15명이든, 5명이든 위원장이 추천하셨다고 답변을 했고 거기에서 감사가 성향이 치우친 것인지 검토해서 추천을 했다고 저와 대화했습니다. 거기에서 큰 오해가 비롯되었습니다.
  처음부터 15명이든 100명이든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절차상으로 논의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고, 제가 지금까지 줄곧 문제제기 한 것은 인재성장부장께서 위원장이 혼자서 추천을 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6명은 사무처에서, 9분을 위원장님이 추천하고, 그래서 감사님이 1~2분 선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심의위원 풀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 이승정 위원

- 사무처에서 15명을 기존 심의위원 풀과 같이 사회적 역량을 보고 결정을 했다든지, 타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다든지 해서 그 중 위원장님이 권한이 있으니까 조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이 심사위원 풀을 위원장께서 구성했다는 것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까지 초지일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 제가 심의위원 풀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예술경영이나 기관 행정 역량 평가 즉, 행정전문가는 잘 아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무처에서 올라온 안을 제가 결재를 한 겁니다.

○ 나종영 위원

- 감사가 추천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에서 추천했다 하면 되겠어요? 추천권이 없는데?

○ 박종관 위원장

- 감사가 어떻게 추천을 하겠습니까.

○ 최창주 위원

- 직원들 잘못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사실대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기 때문에 상사의 눈치라든지 상사의 말을 안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 박종관 위원장

- 우선, 이렇게 되도록 한 그 절차와 규정에 관계없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직원 또는 위원분들 중에 누군가 사무처장 공모에 응모한다면 위원님들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런 경우에 선임과정과 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할 경우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재성장부장의 보고를 받고, 보다 투명한 선임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조심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중에 응모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깊은 사전 상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늘 회의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무처장을 임용하기 위한 정관과 절차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무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은 불가피하고, 또 아르코 혁신안 23개 과제 속에서도 사무처 일하는 구조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새로운 방법을 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사무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오늘 사무처장이 임용되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한 논쟁이 해결된 듯한데, 회의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으니 5분정도 정회 했다가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8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봉 위원
- 저는 여전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의 문제가 최종 결과를 번복해야 될 부분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간 숙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숙의하는 과정상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지고 도출된 문제점들이 향후에 개선과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결과 자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생각과,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안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후보자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투자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결론이 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최대한 합의가 안되면, 업무와 관련이 되어있으니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겠죠.
이 안건은 후보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인데, 저는 이 후보자들에 대한 동의 문제와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결합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향후에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결론은 후보자를 부동의 한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향후에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제기가 될 때, 우리 위원회 전체 또는 위원님들에 대한 평판에 대한 부분이 왜곡되어지거나 잘못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상의 문제와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생각하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올리시는 후보자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물을 때, 과정 때문에 이 결론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절차는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공감을 못 얻었다는 것이지,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사무처장 후보를 이미 뽑았습니다.
의안자체가 사무처장 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명확히 한명을 의안에 올려주세요. 절차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기봉 위원님이 고민스러운 것은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표결을 한다면 그 결과 그대로 수용하고, 위원장님이 반면교사 삼아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하신대로 처장 선임 절차는 꼭 개선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 저도 김기봉 위원 위원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임원 선정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가 결합되는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 표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결국은 최종 사무처장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을 짓고,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짓고, 또 이 과정에 대해 김기봉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새로운 프로세스나 반성의 과정이나 대안이 있다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주 위원

- 위원장님만큼 중요한 것이 사무처장 문제입니다. 위원들을 외부위원 결정에서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단체장으로서 잘못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그 문제점을 심사위원 구성방법, 선임문제, 정치적 중립성 등 결론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긴밀히 항상 협의한다고 하시면서 또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안하셨다는 것, 그런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재선임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수결해서 찬성하는 것처럼 진행해서 사무처장이 임용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히려 위원장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옳은 일인지 판단을 잘 해주셔합니다.

○강홍구 위원

- 의견들을 나눴으니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우리한테 두 명중 한명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공식적으로 안건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하고 워낙 의견을 많이 주시니까,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만장일치로 하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어찌됐건 결론을 내야죠.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후보자를 추천하겠습니다. 정식 의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보고를 받아야겠습니다.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인재성장부에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의 임용건 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임용을 의결함. 임기는 임명일부터 3년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사무처장 임용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최종 후보자 중 전효관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사안이 표결로 가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동의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혁수 위원

- 사람에 대한 문제니까 비밀투표를 하죠.

○박종관 위원장

-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최창주 위원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효관 확정으로 결론을 내리려면, 우리 위원들이 재심의를 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경력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청렴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결 가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나종영 위원

- 우리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이 뽑은 세 사람 중에서 위원장님이 분석을 해서 최종 후보를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 혹은 부동의 하면 되고, 맘에 안 드시면 부동의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위원의 역할이지 이것을 심사위원을 다시 뽑으라는 것은 엄청난 월권행위입니다.

○강윤주 위원장

- 표결방식에 대해 제안을 주신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 안에서 최창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몇인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승정 위원

- 우리가 아까 김혁수 위원님이 사람에 관련된 문제니까 비밀투표 하자겠는데, 저는 사람에 대한 판단보다는 절차적 문제고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현을 충분하게 해서 국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밀 투표를 한다면 의결에 참여 안하겠습니다.

ㅇ박종관 위원장
- 반대 의견이 있으신데, 그냥 투표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ㅇ나종영 위원
- 저는 비말투표에 동의합니다.

ㅇ강홍구 위원
- 저도 비말투표에 동의합니다.

ㅇ이희경 위원
- 저도 비밀투표에 동의합니다.

ㅇ강윤주 위원
- 저도 비밀투표에 동의합니다.

ㅇ이희경 위원
-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ㅇ이승정 위원
- 저는 결과에 책임 못 집니다.

ㅇ최창주 위원
- 저도 못집니다.

ㅇ강윤주 위원
-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권한다는 뜻인가요?

ㅇ최창주 위원
- 기권이 아니죠.

ㅇ이승정 위원
- 아니요,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기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ㅇ강윤주 위원
- 그건 기권처리를 해야죠.

ㅇ강홍구 위원
- 비밀투표 하시죠. 예를 들어서 손을 들어서 참여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비밀투표를 참여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표결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혁수 위원

- 아까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지 사람 하나를 두고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권이라는 뜻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부정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 부정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단순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화시켜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승정 위원님 어떠신지요?

○이승정 위원

-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저도 표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절차가 잘못됐고 모든 게 잘못됐는데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문스럽죠.

○박종관 위원장

- 제가 가장 위원장으로서 염두에 둬야할 것이 합의제 문제입니다. 표결절차가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이 공정하였는지는 나중에라도 평가를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강홍구 위원

- 제가 보기에는 표결을 어떻게 할지는 위원장님의 결정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 지셔야죠.

○강윤주 위원

- 각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로써 의사표명을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권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개 할 경우에, 몇 명이 찬성했고 몇 명이 반대했는지, 또 몇 명이 기권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합의제로 만장일치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승정 위원

- 다시 정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비밀투표를 하게 된다면, 의결에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대다수 사람들이 비밀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민주적 절차에 동의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강홍구 위원

- 그럼 기명투표로 합시다.

○강윤주 위원

- 기명투표로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기명투표로 하시겠습니까?

○최창주 위원

- 반복되는 얘긴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동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재선임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절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홍구 위원

- 최창주 위원님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나종영 위원

- 그걸 다른 위원들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윤주 위원

- 네, 그럼 우리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명투표 하시기로 다 동의하신 거니까 사무처에서는 기명 투표를 진행 하시죠.

○강홍구 위원

- 준비되셨나요?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네, 지금 투표용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나눠드리면 거기에 기명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강윤주 위원

- 투표용지 주세요.

○최창주 위원

- 재선임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사무처장 공모자 명단, 사무처장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심사위원 명단 다시 갖고 오면 재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투표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것은 자료를 다 보내드렸어요.

○강홍구 위원

- 표 나눠주세요.

○이희경 위원

- 성함쓰시고, 서명하시고, 가/부 써주시면 됩니다.

(12시 48분 투표)

(12시 51분 결과발표)

○박종관 위원장

-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의결은 위원회 전체의결이고 저는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각종 법적,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거론하시지 않아도 저는 이것을 헤쳐 나가야할 책임이 무거운 위원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이 잘 인식 해줬으면 하고, 두 번째는 '가' 의견과 '부' 의견을 주신 모든 위원님들에 대해서 부족한 위원장을 위해서 이렇게 깊게 고민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제가 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한분씩 다시 가슴에 안고 최대한 위원회를 끌고 가겠습니다.

  좋은 사무처장을 인선했다는 생각은 다들 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 이후에도 최소한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가' 6표, '부' 3표가 나왔습니다.

  저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 의 의견이 훨씬 더 많으므로, 저도 '가' 의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 최종 결과발표를 하시죠?

○ 박종관 위원장

- '가' 7표, '부' 3표로,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정 위원

-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을 계속 듣겠습니다.

○이승정 위원

- 우리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 속에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무처 혁신안에 관련한 내용들은 작년부터 위원들이 계속 회의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책임지시고 사무처에서 세부규정까지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추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ㅇ박종관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4. 폐 회 선 언

ㅇ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252차 위원회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회의종료)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